

“총무원 중심 5대 결사는 4無가 문제”

무계과 종회의원 스님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 토론회서 한 목소리

리더십 無 “종단 내부 지행 겸비한 리더십 부재”
소통 無 “동원된 개혁 성공 사례 역사적 전무”
협력 無 “중앙종회조차 5대 결사 추진 무감각”
감동 無 “총무원장 1080배라도 올려야”

총무원이 주도하고 있는 5대 결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제도권의 자발적 역량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 분과회의장에서 열린 ‘조계종 5대 결사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무계과 중앙종회의원들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준)은 2월 24일 토론회를 열고 5대 결사의 성공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총무원 주도의 5대 결사가 일반 대중과의 소통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웅기 총장은 “아래로부터의 역량 조직이 현재 종단 구조에서 만만치 않아 보인다. 총무원도 교구본사별 토론회를 주문했지만 실제 교구에서의 공의 결집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총무원-교구본사-말사로 이어지는 조계종의 구조와 위에서 아래로 총무행정체계를 통해 지점으로 전파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다.

정웅기 총장은 또 현재 조계종 내부에는 지눌 스님이나 요제 스님, 성철 스님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도 없고, 총무원 밖에도 결사의 내실을 강화해 줄 창의적 세력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대중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아래로부터 대중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구성원 간에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 총무원장 이하 집행부가 개인적 기부는 물론이고 자신의 사찰부터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웅기 총장의 발제 이후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퇴후 스님은 “현재 5대 결사가 행정중심의 동원령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를 봐도 동원된 개혁은 실패했다. 5대 결사를 민족문화수호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도 민족문화수호와 5대 결사가 혼재된 문제를 지적했다. 스님은 민족문화수호위원회 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100일 회향을 기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스님은 “내부 성찰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

강조했다.

반면 5대 결사보다는 민족문화수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용승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사무총장은 “5대 결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민족문화수호의 틀을 확산시켜야 불교계가 기독교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5대 결사가 총무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대중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현상이 중앙종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연 스님은 쇄신과 결사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기부와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5대 결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상훈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정보관리국장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 스님과 지용 스님은 5대 결사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강한 의지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연 스님은 총무원장이 5대 결사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불교계 내부에 먼저 그 의지를 펼쳐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연 스님은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 대회만 끝나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있다. 원장 스님이 교구본사를 방문하면서 5대 결사를 위한 1080배라도 한다면 대중들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용 스님은 “5대 결사는 미래 불교의 존립이 걸린 문제다.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서기 힘들다고 느끼는 스님들이 많다. 총무원장이 중운을 걸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총무원 주도, 집행력 담보는 용이 아래로부터 동력 없어 참여 부족

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이미 제시된 5대 결사 이외에 우리가 자성하고 쇄신할 것이 무엇인지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 스님은 사찰의 재정 공개와 스님들의 고급 차량 제한 지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가 시작돼야 국민들이 조계종이 변화하고, 국민에게 다가서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이 제기됐다. 중앙종회 의원들조차 5대 결사를 관망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법안 스님은 “총무원이 결사를 추진하면서 종회 의장단과도 논의가 없었나” 종회의 관심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종단 특성상 바닥에서 의견이 올라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차피 종단이 시작했으니 종단이 자세를 낮춰서라도 결사를 성공적으로

박기범 기자

5대결사 점검③ 생명결사

‘생명’ 초월해야 ‘생명결사’ 완성

불교 생명관은 생사 초월 중생 고통 보듬는 결사시대야

조계종은 5대 결사 중 하나로 ‘생명결사’를 내걸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명살림 방식/순례 ▷불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생명존중 의식 확대 ▷생명살림을 위한 청규 제정 및 시행을 제시했다.

종단이 ‘환경결사’가 아닌 ‘생명결사’를 제시한 것은 스스로 ‘환경’을 뛰어넘어 이 땅의 ‘생명’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생명결사의 주요내용이나 현재 종단이 검토하고 있는 세부 실천 방안들은 환경문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과의 폭을 넓혀 환경 문제가 아닌 진정한 생명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9년 11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한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당시 총무원은 자승 스님의 방문을 기점으로 우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각계각층과 머리를 맞닿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영국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자승 스님이 뒤늦게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한 것과 달리 천주교는 용산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했다. 생명결사를 하겠다면 중생이 고통 받는 현장에서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생명’의 의미를 ‘삶’에 한정시키는 것은 생애 집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불가의 생명존중은 생명을 넘어선 것이다.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이 곧 관계성을 존중하는 비폭력이다”라고 말했다.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도 “생명의 가치를 전 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간다면 한국불교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불교만이 주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밝혔다.

종단은 현재 생명결사의 실행계획에 대한 실천안을 마련하고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실천 안으로는 가정에서 장바구니 사용 안 하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생명살림 모범 사찰 선정 등이 논의 중이다.

총무원 사회부 공승관 팀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것이다. 불교환경의제 21도 다시 검토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공원관리법 개정안 “글썸...”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불교계 반응 냉담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원관리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상정됐지만 불교계의 반응은 아직 차갑다. 개정안이 불교계의 요구를 일부 담아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이 발의한 ‘공원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3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대상으로 공원계획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

러나 불교계가 줄곧 요구해 온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 해제와 사찰을 중부 규제하고 있는 국가법령 개선 등 근본적 조항이 빠져있다. 불교계에서는 이를 놓고 개정안이 정치권이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김영일 차장은 “불교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돼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불교와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민족문화수호결의 전국에서 이어져 조계종이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자성과 쇄신의 결사를 천명한 가운데 남양주 봉선사는 2월 25일 경내에서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봉행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월초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본말사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민족문화수호 교구위원회 결성에 이어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도선사는 2월 24~26일 안성 칠장사에서 진행된 108상사순례에서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교구본사 외 전국사찰에서도 동참열기가 이어졌다. 이밖에 3월 10일에는 보은 법주사, 17일에는 부산 범어사 각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봉선사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사부대중이 1080배를 올리고 있다. 노덕환 기자



(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제5세 종정 법담 정각대종사 취임법회에 보내주시는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인사 올립니다.

귀의삼보 하옵고,
 지난 2월 22일 봉행한 본 종단 5세 종정 취임법회에 보내주시는 제방의 원로대덕스님과 불교계, 종교계, 학계, 재계,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한 각계 대표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전국 각지에서 수회 동참하여 여법한 취임법회를 만들어 준 일불분도와 종도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지만 우선 지면으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게 됨을 널리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종은 제5세 종정 법담 정각 대종사를 중심으로 모든 종도가 일치단결하여 종단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가일층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소종단들과 연계하여 양질의

승려교육을 실시, 본 종단은 물론 군소종단 승려의 질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합동다비장을 설치하여 희망하는 승려는 누구라도 이용 가능하게 하여 재가와는 차별화된 승가의 전통장례문화를 통해 승가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본 종단의 미래 비전은 본 종은 물론 군소종단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여 한국불교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종단 5세 종정 취임법회에 보내주시는 제방의 원로대덕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승가의 법체강령을 기원하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건승을 삼보전에 합장·축원 올립니다.

불기2555년 2월 좋은 날



(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종도일동